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회의(CGI) 개최

1. 회의개요

- 표제회의가 인도네시아 정부주관(WB 인니 사무소 협조)으로 “경제·사회개발, 재난대응 및 2006년 원조국 유무상 원조”를 주요 토의의제로 6.14(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원조 공여국 정부대표(21개국 참가), World Bank, UNDP, IFC, IMF, ADB, 이슬람 개발은행(IDB) 등 9개 국제기구, NGO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2. 핵심요지

- Boediono 경제조정장관은 개막사를 통해 금년도 5.7-5.9%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개혁 프로그램(투자, 기간산업 정책 패키지 발표 및 금융정책 패키지 준비중)과 주재국 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5.27 발생한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관련 복구에 긴급 지원을 한 CGI 멤버들에 대한 사의를 표함.

- 금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EU, 한국 등 주요 국가대표들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최근 인니 정부에 의한 경제 개혁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여건 개선 및 개혁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금번 CGI 회의시, CGI 멤버들은 39억불의 개발차관 및 2억불 규모 무상원조를 발표

- 별도로 15억불 규모의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진피해 지원 의사를 밝힘.

- 우리 대표는 금년도 EDCF 1억불 및 무상원조 14.19백만불(족자 지진피해 지원 2백만불 포함) 지원 의사를 발표함.

3. 주요 내용

가. 의제 1 : 경제 (투자, 성장 및 거시경제) 및 사회개발

- Mulyani 재무부 장관은 금년도 5.7~5.9%의 경제성장(당초 정부목표 6.2%의 하향조정) 및 내년도 6~6.5%의 성장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운영 및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신투자법 및 관세, 세제 등 세법개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니 정부의 지원정책 소개 및 이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CGI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원조 및 투자증대를 요청함.

– 동 재무장관은 대인니 기간산업 투자관련 “리스크 분산 재정지원 장관령(financial risk resharing decree)”을 최근 서명하였다고 소개함

※ 금번 회의시 인니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

- GDP 성장률 : 5.7~5.9%
- 재정적자율 : GDP 대비 1.3~1.5%
- 루피화 환율 : 미달러화대비 9300Rp
- 이자율 : 12%
- 인플레이율 : 8%

- Abdullah 중앙은행장은 루피화 가치 안정 및 15%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고이자율 정책(현재 12.5%) 및 긴축적인 통화정책(Tight Monetary Policy)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금융부문의 개혁

을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금년도 연평균 5.7~5.9%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함.

– 2006년도 1/4분기 성장률 4.6%였으며, IMF측은 금년도 성장률을 5.2% 대로 전망함.

- Boediono 경제조정장관은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이 인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예산 확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사회약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직접 빈곤퇴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의 개선을 약속함.

– 05.10.1 단행된 국내유가인상(평균 126% 인상) 관련,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함.

- Widodo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최근 인니 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고 테러리즘 등 국가안보, 불법도벌, 밀수, 불법조업 근절 문제 등이 인니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소개함.

- 이에 대해 CGI 멤버들은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 예측과는 다르게 경제성장 둔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표시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선정 강화(good governance), 경제개혁조치의 실질적인 이행 및 관련 개혁 법안의 조속 의회 통과 등 부패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요청함.

– 한국정부로서도 주재국이 추진중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의 과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주재국에 개발과정에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함. 한편,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이에 대해 Boediono 경제조정장관도 현재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단체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인 바, 동 협상 추이를 보아 가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함.

나. 의제 2 : 재난대응(족자카르타 지진, 조류독감 및 아체 쓰나미)

- 인니 정부는 금번 족자카르타 지진 및 2004년 남아시아 지진피해에 대한 CGI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관대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금번 족자카르타 및 중부 자바지역의 “지진피해 및 손실 산정 보고서”(지진피해규모를 31억불로 잠정 추산, 별첨1 참조)를 제출함.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재건·복구 Action Plan을 만들 예정이나, 족자카르타의 경우 아체와는 다르게 지방 정부가 건재하고 피해 분야도 주로 주택 파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 신속한 재건·복구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함.
- 주재국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7.1부터 피해 지역에서 주택 수리 및 재건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이라 하며, 공여국들에 대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 World Bank는 금융지원을 위한 각국의 지원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금액이 부문별로 mis-matching되는 비효율적 배분을 막기 위해 재원배분의 효율적인 mechanism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Aceh지역의 peace process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도 필요함을 언급함.
- 주요 국가들의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진 피해 관련 지원 규모 발표
 - 일본(1천만불), 미국(7백만불), 영국(500만 파운드), 호주(750만 호주불), EU(3백만불) 등
 - 우리 대표단도 19명의 긴급구호팀 파견 및 2백만불의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자금 지원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함.

다. 의제 3 : 2006년도 재정소요 및 2007년도 연간 작업계획

- 인니 정부는 2006년도 재정소요 및 중기개발계획(2004~2009년)에 따라 2007년도 주요 추진과제(9개)가 담긴 연간 작업계획을 발표하고, 빈곤퇴치, MDGs 달성, 고용 확대 및 수출·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소요 부문은 국채발행 및 외화차입을 통한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CGI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유무상원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2006년도 재정 소요 규모

: 총 167~170억불

• 예산적자 : 43~46억불

• 외채상환 등 기타 소요 : 123억불

- 2006년도 재정 소요분 조달 계획

: 167~170억불

• 국내조달(국채발행등) : 120~123억불

• 해외조달 : CGI 39~42억불,

non-CGI 4~5억불

■ 이에 대해 CGI 회원국들은 유무상포함 총 54억불을 중기 경제개발 및 재건복구에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39억불은 2006년도 개발지원자금으로 서약하고, 족자카르타 지진 피해 복구 자금지원으로 15억불을 발표함.

- 39억불의 개발지원 자금을 37억불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loan이고 나머지 2억불은 정부개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무상(grants)으로 지원할 예정

- 주요 국가의 지원액 규모 : World Bank 9~11억불, ADB 9억불, 일본 8.4억불, 독일 2.5억불, 영국 5천만파운드, 호주 3.2억호주불, 미국 1.7억불(추가로 55만불 지원예정) 등

- 우리 대표단은 인니를 금년부터 중점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고 소개하고 2006~2009년까지 우리의 대인니 유무상지원

금액은 4.3억불(4억불 EDCF 차관, 3천만불 무상원조)규모이며, 2006년도에는 1억불의 유상 및 1,419백만불의 무상지원(2백만불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복구내용 포함)을 발표함.

4.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진 피해 재건 · 복구 지원 방법

■ 주재국 Boediono 경제조정장관 및 Sri Mulyani 재무장관에 따르면 주재국측은 금번 족자카르타 및 중부자바 지역 지진 피해 시 재건 · 복구를 위한 공여국들의 지원 절차에 대해 아래 방법을 제시함.

① 아체 경우처럼, World Bank 주관으로 다국가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을 설치하고 각국이 동 기금에 지원금을 납부하는 방안

- 단, 이 경우 별도의 신탁기금 설치 대신, 기존 아체 신탁기금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중

- 동 기금에 공여국이 재건 · 복구비용을 납부할 경우, World Bank 가 인니 정부 및 기금 납부 공여국들과 협의, 재건 · 복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동 이행하는 방식(Pool 방식)

② 각 공여국이 재건 · 복구비용을 인니 정부 예산에 제공하는 방법(인니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

- 이 경우, 인니 정부가 자체 재건·복구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공여국에 대해서 사용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
 - 재무장관에 따르면 무상지원의 경우, 각 공여국이 직접 족자카르타 지방 정부에 대해 기금을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입장
- ③ 각 공여국이 재건·복구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직접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식
- 이 경우, 지방 정부와 협의, 적절한 재건·복구 사업을 발굴해서 공여국이 직접 계약, 사업 추진 방식

■ 상기 방식 관련 우리 정부는 기존 아체 관례에 따라 3번째 방식(직접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부 검토 결과를 회신 바람.

- 단, 지원대상 사업 분야는 주재국 정부의 재건·복구 Action Plan 작성 및 여타국의 지원 동향 등을 보아 가면서 추후 건의 예정

※ 족자카르타 주지사(술탄)는 한국 정부가 건축자재(벽돌, 기와, 나무, 시멘트 등)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자료: 주인도네시아대사관]